대경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주요내용과 과제

이상준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sjoonee@korea.kr

지역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의 설정과 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후반 당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세를 보임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중앙정부에 의한 여러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대구·경북지역에 큰 힘이 되어 왔다.

이번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그간 '선도산업-전략산업-특화산업'의 틀로 진행되어 오던 지원사업의 체계가 변화되고, 지역의 산업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향후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검토와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 설정과 계획 수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경권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은 IMF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하락하였고, 모바일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으며,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에도 차세대 생산라인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도 아직 시장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신성장산업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위상 또한 동남권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충청권에 우위를 상실하는 등 타 광역권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경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식경제기반의 글로벌 신성장거점 육성"을 비전으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유망업종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경권 2단계 선도산업과 세부프로젝트

2단계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대경권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 대표 주력산업으로는 스마트기기부품산업과 첨단융합소재산업을 선정